

# 건설동향브리핑

## 제527호 (2015. 9. 7)

### ■ 정책 · 이슈

- '9.2 주거안정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 2015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변화

### ■ 경영 · 정보

- 2014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 ■ 경제 동향

- 8월 CBI, 전월 대비 9.7p 하락한 91.6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9.2 주거안정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 리모델링 임대 ·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 인구구조 변화대비 장기정책, 단기 실효성 낮을 듯 -

### ■ 주거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대책

- 지난 9월 2일, 정부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함. 임대차시장의 불안 지속에 따라 증가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 전세공급 부족 및 월세공급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은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편, 월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기존의 주거지원 정책들이 다수 존재하나, 월세 가속화에 따른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등 계층별 주거지원 도모

- 주거취약계층 지원 : 1인가구, 고령자를 위한 리모델링 임대 및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수요자 자금 지원 포괄
  - 내년부터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도입해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연 2천호를 공급할 계획.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1천호 공급 목표하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면 저리의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공사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업 구조임.
  - 주거복지통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상향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2016년부터 공급할 예정임.
    - ※ 주거복지통합동은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1개동을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한 복합건축물임.
  -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물량은 확대하여 공급물량 확대
  - 고령층의 공공임대 계약금 및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을 통해 수요자 자금 지원
- 뉴스테이 활성화 :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의 연내 성과달성 및 재무적투자 환경 개선 추진

- 2015년 리츠 영업인가 목표는 1.4만호이나 2016년에는 2만호로 확대 추진
- 우선주 출자 허용,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 도입,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면제 등을 통해 재무적투자자 참여 유도
  - ※ 기금이 모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다수의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임대리츠
-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12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를 동시 운영하여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공급, 기금대출과 관련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예정
-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 규제 합리화 및 수익성 및 투명성 제고 도모
  -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 → 1/2로 인하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 제한
  -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대체를 허용하여 부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시 전체 연면적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여 사업성 제고 효과 기대
  -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검인동의서 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 ■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 시장 정착시간은 필요할 듯

- 이번 대책은 월세전환,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한 단기대책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1인가구 증가, 고령층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장기정책으로 평가됨.
  - 리모델링 임대, 공공실버주택 등 다수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포괄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이 다수이며 실제 공급물량도 소규모에 불과함. 실질적으로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
  - 저금리 환경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월세 전환, 전세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2015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변화

- 표준시장단가 상반기 대비 총액 0.37% 상승 효과 추정, 표준품셈 25개 항목 개정 -

### ■ 계약단가 · 입찰단가 · 시공단가 토대로 심의 후 확정

- 수집된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설계의 99.7~100% 수준에 집중 분포, 반면 시공단가의 66%가 상반기 단가 초과
  - 시공단가는 건설회사가 실제 현장에서 집행한(또는 예정인) 가격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21개 원도급사가 자료를 제출해 동일조건 3건 이상 총 291개 시공단가의 수준을 분석
- 주요 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3건 이상 시공단가 291개 항목은 민/관 동수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검토됨.
  - 조사단가 평균이 상반기 대비  $\pm 5\%$ 일 경우 단가를 동결함. 조사단가 평균이 상반기 대비  $\pm 5 \sim \pm 10\%$ 인 경우 소폭 조정함. 즉, 5% 초과 등락률의 1/2를 반영함. 단가 등락요인이 명확하면 하도급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협회 위원의 의견을 받아 확정
  - 조사 부족, 등락요인 불명확시 계약단가 및 입찰단가를 기초로 6개월 공사비지수 등락을 일괄 적용(토목은 -1.0%, 건축 및 설비 -0.7% 하락)
- 1,968개 항목의 등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3건 이상 시공단가가 조사되어 전문가협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승한 조정단가는 47개 항목이며, 동결된 조정단가는 7개, 하락한 조정단가는 10개인 것으로 집계됨.
  - 조사 평균 단가가 상반기 대비  $\pm 5\%$  이내에 있어 동결한 단가는 36개임. 조사 평균 단가가 상반기 대비  $\pm 10\%$ 를 보여 상승한 단가는 21개, 하락한 단가는 9개임.
  - 연관규격단가의 경우 51개 항목은 상승, 54개 항목은 하락함. 합성단가의 경우 430개 항목은 상승, 하락한 단가는 3개임.
  -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한 물가연동단가 1,300개 항목은 하락함.

### ■ 상반기와 동일시 688개 항목 기준 총액 0.47% 상승, 전체 1,968개 항목 기준 0.37% 상승 추정

- 표준시장단가 1,968개 항목은 공사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공사비 총액 0.37% 상승 효과 기대(688개 항목 +0.47%, 나머지 -0.1%)

- 토목은 1,083개 항목으로 금액비중은 11.58%로 가정하여 0.02%의 총액하락 효과 추정
- 건축은 510개 항목으로 금액비중은 7.29%로 가정하여 0.30%의 총액상승 효과 추정
- 설비는 375개 항목으로 금액비중은 1.23%로 가정하여 0.10% 총액상승 효과 추정
- 금액비중은 2014년 하반기 당시 최근 발주사업 234건에서 1,968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 2015년 표준품셈 하반기 개정 항목은 총 25개 항목

- 표준품셈은 총 2,416개 항목으로 토목 1,483개, 건축 497개, 설비 436개임.
  - 표준품셈은 현장실사를 거쳐 개정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개정 항목은 상대적으로 저조
- 금번 개정 항목은 전년도 이월 항목 중 ‘3-1-2 암석절취 22(토목 11, 건축 11)’, ‘5-7-2 차수제공 2(토목 1, 건축 1)’, ‘15-2 터널 여굴량 1(토목 1)’ 등 총 25개 항목임.
  - 추가 현장실사는 2015년 3~6월에 실시하였으며,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그룹별 심의를 통해 개정을 확정함.
  - 다만, ‘15-2 터널 여굴량’은 유보하기로 결정
- ‘3-1-2 암석 절취’의 개정 수요는 다음과 같음.
  - 설계 방법의 간소화 : 소모 자재비용 산출방법 간소화
  - 품 현실화 : ‘허물기 및 들어내기’ 굴삭기 품 추가, 적용 실적이 전무한 항목의 삭제, 현장실사가 가능한 항목의 품 현실화 등
  - 주기사항 정리 : 설계기준, 지침 등에 제시되어 있어 품셈에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암석 소할 등 의미 명확화 등
- ‘5-7-2 차수제공’의 개정 수요는 다음과 같음.
  - 적용기준 개선 : 현행 4겹 시공을 통합한 단일품에서 한 겹씩 별도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품 현실화 : 현행 인력품을 ‘인력+장비(크레인)’으로 개정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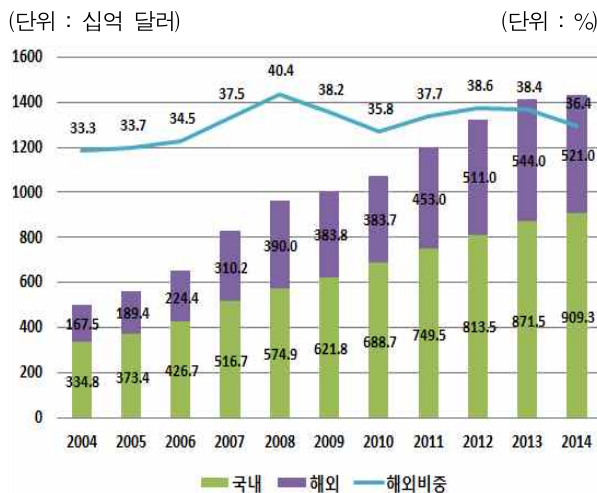
## 2014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 ENR지 선정 건설사 대상, 해외매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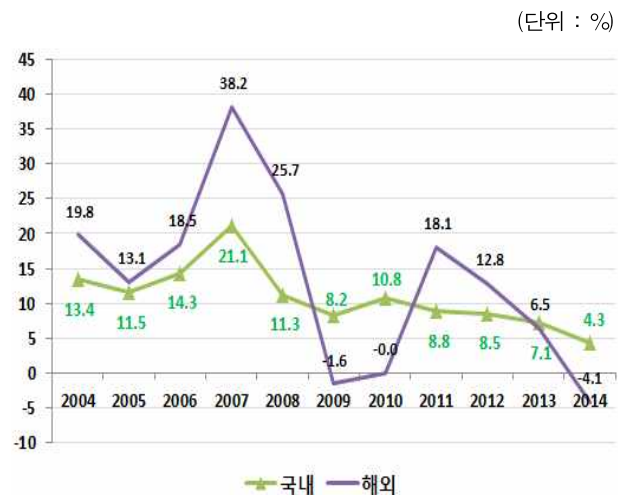
### ■ 2014년 해외매출, 전년 대비 4.1% 감소한 5,215억 달러

- ENR지가 선정한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의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 글로벌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 4,308억 달러로 집계됨.
  - 국내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9,092억 달러를 기록해 글로벌 매출의 63.6%를 차지한 반면에 해외매출 비중은 36.4%로 전년 대비 2% 하락함.
  - 특히, 해외매출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4억 달러가 감소한 5,215억 달러에 그침.1)

<글로벌 건설시장 매출 및 해외 비중 추이>



<국내 및 해외매출 성장률 추이>



### ■ 공종별 : 건축 및 제조 부문 증가, 석유화학 · 교통 · 발전 등은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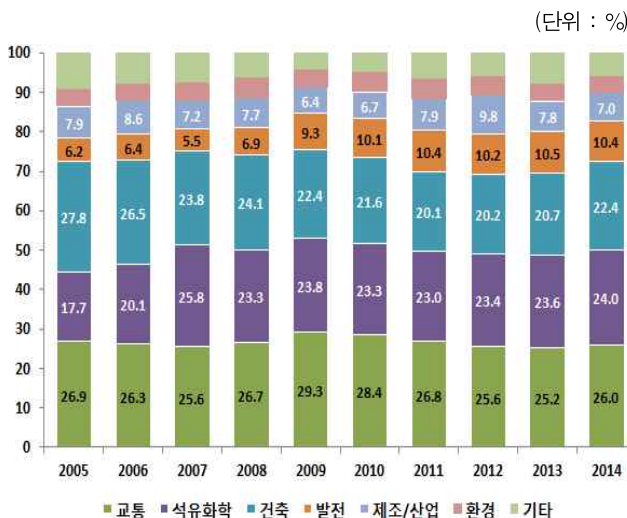
- 전체 해외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공종(교통, 석유화학,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9% 증가해 72.4%를 기록함.
  - 전년 대비 각각 39억 달러와 2억 달러가 증가한 건축과 제조 부문을 제외한 석유화학, 교통, 발전, 산업, 환경의 해외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

1) 2013년 각각 71.3억 달러와 68.5억 달러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과 빌핑거(Bilfinger) SE가 2014년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두 기업의 2014년 해외매출을 포함할 경우 250대 기업의 해외매출 감소 규모는 발표된 수치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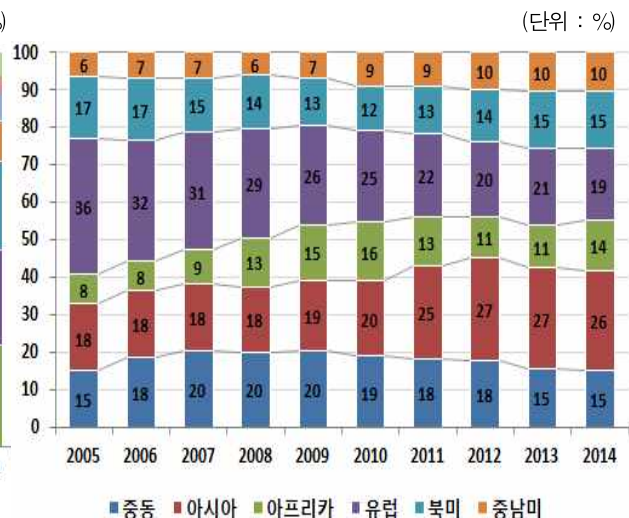
■ 지역별 : 아프리카 및 미국 지역 매출 증가, 유럽 · 아시아 · 중동 등은 감소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미국 지역의 매출만이 전년 대비 각각 14.7%와 5.7%씩 증가한 반면,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지역은 전년 대비 감소
  -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9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캐나다를 필두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해외매출 규모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함.
  - 중동 지역의 해외매출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790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하회함.

<공종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



<지역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



■ 우리나라 해외건설기업,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세계 5위

- 우리나라 해외건설기업의 해외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4억 달러가 감소한 370억 달러를 기록.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7.1%로 중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5위임.
  - 지난 3년 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중동에서는 136억 달러의 매출로 151억 달러를 거둔 중국(19.2%)에 밀려 2위(17.3%)를 기록함.
  - 250대 순위 에 포함된 국내 건설기업은 총 12개 사이며, 30위 안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3개 사가 포함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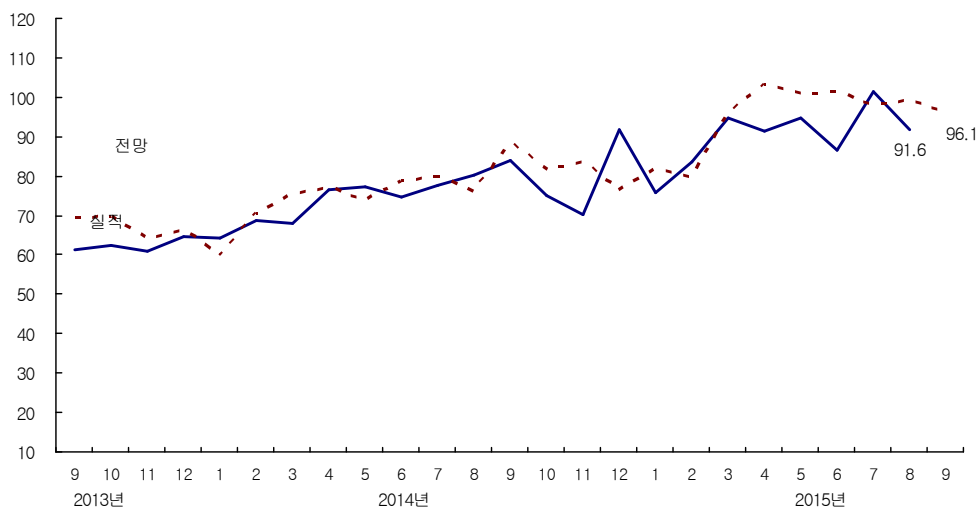
## 8월 CBSI, 전월비 9.7p 하락한 91.6

- 13년 7개월 만에 기준선(100.0) 상회한 전월에 비해 다소 조정 -

### ■ 계절적 요인과 통계적 반락 효과로 하락, CBSI 수치 자체는 양호한 편

- 201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sup>1)</sup>는 전월비 9.7p 하락한 91.6을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7월에 1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서는 다시 하락함.
  - 이는 본격적인 호서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월 CBSI가 크게 상승(14.6p)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비 17.3p 하락해 전체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 역시 전월 지수가 매우 양호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로 판단됨.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인 7월에 125.0을 기록해 13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음.
  - 8월 CBSI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 자체는 90선을 유지해 양호한 편임.
  - 결국 계절적 요인과 통계적 반락 효과로 다소 조정되었지만, 1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상회한 7월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중견, 중소기업 지수 모두 하락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지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대형기업 지수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
  - 대형기업 지수는 13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 17.3p 하락한 107.7을 기록함. 주택 부문 신규공사 지수가 전월 158.3에서 115.4로 크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큰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대형기업의 체감경기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2.8p 하락하여 91.9를 기록했음. 상반기에는 중견기업 지수의 변동폭이 비교적 컸으나, 6월 이후 안정세를 나타냈는데 8월에는 계절적 요인 및 통계적 반락 효과로 인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8.4p 하락한 72.5를 기록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수 자체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중소기업 지수는 올해 들어 51.9~82.0 사이를 오르내리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4.9	70.4	91.7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99.2	96.1	
규모별	대형	92.3	92.3	100.0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25.0	100.0
	중견	78.8	70.0	97.0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4.7	97.3
	중소	50.0	45.1	76.0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2.5	73.9	90.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9월 전망치, 8월 실적치 대비 4.5p 높은 96.1 기록

- 9월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4.5p 높은 96.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다는 것은 건설기업들이 9월에는 건설경기가 8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올 9월에도 8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 27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과 주최, '건설기초안전교육 재원마련 정책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건설기초안전교육 소요비용 재원마련 방안 논의 등</li> </ul>
8. 28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정책관실 주최, '통일주택포럼'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li> </ul>
8. 31	서울경제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제도 변화 대담'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출연</li> <li>-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토의</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정책과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서민 주거안정 정책 관련 논의</li> </ul>
9. 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참여</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조정과 주최,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2016년 국유재산기본계획 심의 등</li> </ul>

■ '2016년 연구과제' 공모

- 우리 연구원은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6년도에 우리 연구원이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구과제를 공모함.
- 기 간 : 2015. 9. 1(화)~30(수)
- 제안대상 : 건설 유관단체,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설업체 등
- 접수처 : kslim@cerik.re.kr / trd8792@cerik.re.kr
- 기 타 : 제안서 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 과정' 모집

- 일 정 : 2015. 9. 15(화)~17(목), 총 3일 간 21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 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45만원/인
- 문 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 02-3441-0691, 0848)

##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세계 1위에 랭크된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다. 전자산업의 삼성전자, 철강산업의 POSCO, 그리고 조선업에서 현대중공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아직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2014년에 66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가 발표한 세계 건설기업의 매출액 순위를 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런데 해외 건설시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1인당 총고정자본 형성 실태를 보면, 선진국은 6,000달러 내외이나, 중국, 베트남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의 주택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외건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은 다소 상이하다. 유럽 기업들은 주로 현지 업체의 인수·합병 방식을 선호하고, 매수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지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개발원조(ODA) 등의 경제협력시책을 활용하거나 식민지 시대 종주국이었던 사회·역사적인 영향력을 결부시키는 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와 같은 사업 방식을 창조하고, 금융 측면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주로 프로젝트관리 등 인프라 건설의 상류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 기초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서 울저팬(all Japan)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PFI와 자산관리 등 상류 서비스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건설업체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업체는 단순도급 위주의 수주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플랜트건설 외에 대규모 신도시개발이나 하천정비, 고속철도, 공항, 초고층건축 등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발주자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PPP시장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PPP시장은 2,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나 하수처리장 등으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PPP시장을 확대하려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해외사업 펀드를 조성하고, 파이낸싱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 세일즈를 포함하여 전방위 외교나 정보 공유, 공동 네트워크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해외건설 분야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시아경제, 2015. 8. 27>

최민수(건설정책연구실장 · mschoi@cerik.re.kr)